서울 이주민 포교 중심지로 발돋움

방글라데시 불자회 창립
베트남 이은 두 번째

9월 24일 50여 회원으로 조직
2015년 베트남 불자회도 구성
서울지역 이주민 신행 중심지로


2015년 국제선센터서 열린 이주민 합동 결혼식 모습.

이주민 200만 시대를 맞아 불교계의 이주민 포교활동이 활발하다. 특히 서울지역 이주민 법당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조계종 서남권 포교중심도량인 국제선센터(주지 탄웅)가 나섰다.

국제선센터는 9월 24일 큰법당에서 '국제선센터 방글라데시 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국제선센터 방글라데시 불자회는 방글라데시 출신 불자들이 10여 년 전부터 이름조차 없이 부정기적으로 신행활동을 이어 온 모임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김포지역 연립주택 내 작은 법당인 붓다사를 구심점으로 삼고 탄암 스님(서울해인선원 주지)을 부정기적으로 초청해 법회를 이어왔다.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는 1% 가량의 불교신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사원 및 불자마을 파괴 등 불교 탄압으로 인해 국제적인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방글라데시 이주민들은 2012년 불교 탄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현지 주민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국제선센터의 이번 불자회 창립은 방글라데시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슬림인 방글라데시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불교를 접하고 자국에서의 종교화합과 인식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에서 이뤄졌다.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과 사제인 탄암 스님이 뜻을 모아 불자회 출범을 추진했다. 이번에 출범된 방글라데시 불자회는 5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초대 회장은 라나(한국이름 장지성)씨가 맡게 됐다.

탄암 스님이 지도법사를 맡아 매달 국제선센터에서 정기법회를 통해 불심을 증장하며 회원간 화합도 도모할 예정이다.

초대 회장을 맡게 된 라나 씨는 "18년 전 한국에 들어와 우연한 기회로 지도법사 탄암스님을 만난 뒤 10여 년 동안 방글라데시 불자 모임을 힘겹게 이끌어 왔다"면서 "앞으로 국제선센터를 중심으로 불자회가 한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스님은 "방글라데시 불자회를 국제선센터의 한 가족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아낌 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매달 정기법회나 템플스테이를 통해 방글라데시 이주민 불교포교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이에 앞서 국제선센터는 2013년 10월부터 매달 1차례씩 다문화 가정을 위한 법회를 열고 있다. 이 인연으로 2014년 3월 베트남 이주민 불자회를 발족시킨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2011년부터 새터민 지원사업도 펼쳐 금융정보 제공 및 발성교육 교실 등도 열고 있다.

한편, 창립법회는 한국 불교의례에 맞춰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방글라데시 불자회 창립 취지 소개, 임원 임명장 수여, 초대 회장 인사말, 지도법사 탄암스님 인사말, 국제선센터 주지 법문, 발원문 방독, 축하무대,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통등(燈) 문화창달을 '내 손'으로

연등회보존위, 전승 전통등 경연대회



전통등(燈) 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고, 전승자 발굴을 위한 경연대회가 열린다.

조계종 연등회보존위원회와 봉축위원회는 '전승 전통등 경연대회' 작품을 오는 10월 접수해 11월 전시한다. 참가부문은 일반 · 대학생 · 어린이 등으로 나뉘며, 전시는 11월 17~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진행된다.

일반부 제출작품은 팔모등, 연꽃등, 수박등이며 지름 60㎝ 이내로 제작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0월 19~23일, 최우수등(1점, 50만원)을 비롯해 수상작에 작품제작비를 지원한다. 대학생부 제출작품은 연꽃등과 연꽃등의 전통성을 살린 작품이다. 지름 15㎝ 이내여야 하며, 접수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일반부와 마찬가지로 최우수등(1점, 50만원)과 수상작에 제작비를 지원한다. 어린이부는 팔모등과 수박등을 지름 15㎝ 이내로 제작해야 하며, 10월 19~31일 접수한다. 천진불등(1점 30만원) 외 작품제작비가 지원된다. (02)2011-1744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우리 전통체험, 강화 전등사서 즐겨요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삼랑성 문화축제 개최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장윤, 전등사 회주)는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강화도 전등사에서 제17회 삼랑성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성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삼랑성 미술 실기대회와 글쓰기 대회'로 시작한다.

이날 오후 7시부터 방송인 전제향의 사회로 가창력이 풍부한 가수 변진섭, 알리, 화요비, 국악인 남상일이 출연하는 '전등사 가을음악회'가 열린다. 7월부터 문의가 올 정도로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는 전등사 음악회는 독특한 분위기와 관중 몰입도가 뛰어나 가수와 관객이 모두 만족하는 음악회 중 하나다.

15일에는 다례재와 영산재가 열린다. 오전 10시 30분에는 전등사를 창건한 아도화상과 사찰을 가꾸고 지켜 온 역대조사들에 대한 '다례재'를 진행한다.

10월 21일과 22일에는 '강화 국악한마당'과 '남사당놀이'가 펼쳐진다. '강화 국악 한마당'은 배뱅이굿을 기본으로 선녀춤, 부포놀음, 소고춤, 민요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노덕현 기자

현대 미술로의 어르신들의 여행

판교복지관, 미술프로젝트 진행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을 기념하여 현대 미술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9월 29일까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전관에서 진행된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개관을 기념해 진행되는 이번 미술 프로젝트는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을 전시해 어르신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과 틀을 깬 의외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작품 체험도 진행돼 현대미술을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시는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서해근', 크리스찬 디올, 에르메스 등이 작품을 소장한 '오유경', 소버린 아시안 아트 프라이즈를 수상한 '최선' 작가를 비롯하여 정광희, 유승호, 권신홍 작가 등 10여 명의 유명 작가가 참여했다.

현대 미술 프로젝트를 기획한 우리미술문화연구소 정희정 박사는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의 여러 공간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 작품을 찾아 공간을 돌아보도록 유도하고자 한다"며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창립 20년 앞두고 해외포교 시동

국제포교사회(회장 박홍우)는 9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1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 이어 '국제포교사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토크쇼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특히 박홍우 국제포교사 회장은 10월 독일, 내년 1월 멕시코에 국제포교사를 처음 파견해 해외포교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모범 포교사에 대한 시상이 열렸고 국제포교사회 합창단 등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서는 국제포교사 자격고시를 거쳐 교육 과정을 이수한 22기 신규 국제포교사 37명에 대한 품수식이 열렸다. 22기 국제포교사들은 박사 학위자 3명, 석사 학위자 10명이다. **노덕현 기자**

범어사, 생명 함께 더하기 교육 개최

생명 존중 · 자살예방 위한 대강좌 및 기초과정

부산지역서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이 실시된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생명 함께 더하기 실천사업'으로 자살예방 교육상담 전문가 기초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기초과정과 함께 일반 대중을 위한 생명존중 자살예방 강좌도 마련된다.

자살예방 교육상담 전문가 기초 과정은 △1차 주제-자살예방 이론과 기술, 자살 위기자의 감정과 정서 및 조절(9월 28일) △2차 주제-자살현상의 이해와 불교적 의미, 발달기 이해와 자살예방(10월 13일) △3차 주제-자살 위기자 및 자살유가족의 의사소통 기술 익히기, 청소년기 이해와 자살예방(10월 20일)이다.

장소는 범어사 금정불교대학이며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교육 시간은 총 15시간이며 전문기초과정 이수시 수료증도 받는다. 강사는 선업 스님(밝행복치유센터), 효록 스님(자아초월상담학), 자목 스님(동국대 교수), 박재현 교수(동명대), 김길영 외래교수(대림대)이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

일반 대중을 위한 생명존중 · 자살예방 대강좌는 범어사 설법전에서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사는 밝행복치유센터 원장 선업 스님이 맡을 예정이다. 범어사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전문 교육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불자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동참을 독려했다. 051)508-3636

하성미 기자

미혼모들에게 희망의 선물을 전하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미혼모 나눔박람회 성료



불교계가 미혼모들에게 부처님 자비를 통한 희망을 심어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신도회장 이기흥)는 9월 17일 전법회관에서 미혼모들을 위한 나눔 박람회 '행복한 나눔'을 개최했다.

사회적 협동조합 연꽃향기, 불교계 봉사단체인 사단법인 깨달음과 나눔 등과 함께 진행한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미혼모들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온 미혼모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전법회관에 마련된 행사장에서는 무료물품 나눔 행사를 비롯해 의료서비스, 한방진료 및 출산상담 등도 진행됐다. 중앙신도회 측은 "사회 소외계층을 돌보는데 불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미혼모들이 용기를 얻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 개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